

민주 지도부, 자유한국당·황교안 ‘맹폭’

이인영 “망언문제 매듭짓고 광주 찾길”…조정식 “막장 행태”
황 “5·18 기념식 참석 변함없어…징계, 가급적 빨리 처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5·18 망언 의원 처리 문제,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광주시민들을 조롱하는 듯 한 반민주적 작태를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6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자당의 5·18 망언 의원들의 징계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5·18 기념식에 참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황교안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오늘이라도 5·18 망언 의원 문제를 매듭짓고 떳떳하게 함께 손잡고 광주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내부 징계 절차를 완료하고 망언 사과와 재발 방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술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이 이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온전한 진상규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자유한국당이 ‘5·18 망언’ 의원을 옹호하는 극우 유투버를 초청해 토크콘서트를 진행하는 막장 행태까지 선보였다. 매우 개탄스러운 작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한국당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문제인

선거법·공수처법·민생파탄 저지 토크콘서트’에 “(5·18에) 폭동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으니 한 번 생각해봐라”고 한 유투버 성모 씨를 초청한 데 대한 비판이다.

그는 “최근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발포 직전 광주를 방문해 사살 명령

을 했고, 만행을 감추기 위해 대규모 공작반을 만들어 운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사실이려면 대단히 충격으로, 광주 시민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리면서 “그러나 한국당의 똥니로 5·18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8개월째 허송세월만 했다”며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최소한 5·18 기념식 이전에 진상조사위를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5·18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황 대표는 오는 18일 광주에서 열리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 계획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충남 당진화력발전소 방문 후 ‘기념식에 참석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변동사유가 없었으니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당내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서는 “마무리된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갔다 와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기자



5·18 망언의원 징계 불발 규탄

더불어민주당 국회 윤리특위 소속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의 5·18 망언 의원 징계 불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3당 원내대표 ‘물밑 협상’ 시동…내주 국회정상화는 미지수

오신환 선출 계기로 3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 추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16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물밑 협상에 곧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3당은 전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선출로 20대 국회 4년 차 여야 원내지도부 구성이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3자 회동을 갖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원내 핵심관계자들이 전했다.

이와 관련,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취임 인사차 여야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예방했고, 이 자리에서 가급적 빨리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를 맞아 “20대 국회 4년 차 ‘키맨’이 등장했다”며 “젊음과 힘,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회 정상화에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 원내대표와 만나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 데, 우리가 국회를 제대로 잘 열어서 국회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함께 지혜를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고 하셨으니 이 원내대표는 ‘떡주 한 잔 사주는 형님’이 돼 ‘호프타임’을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여당인 민주당은 한

국당이 국회에 돌아올 명분을 줘야 한다. 한국당도 장외투쟁을 그만하고 조건 없이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옳다”고 ‘중재안’을 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3자 회동을 통해 민생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선거법·개혁법안 패스트 트랙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해 추경과 민생 추경의 동시 처리, 한국당이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강행 사과, 바른미래당이 제안하는 민주당의 사과와 한국당의 조건 없는 국회 복귀가 겹겹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이 포인 정국을 풀기 위해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일대일 회동을 역제안한 데 따른 각 당 이견이나 여야정 협의체 재가동 방식도 주요 의제다.

협상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 중 5월 임시국회 소집에 합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황교안 대표가 다음 주말 서울 집회까지 ‘민생투쟁 대장정’을 예정하고 있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일정과 한국당의 국회 복귀 시점이 맞물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원내대표들의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5·18 당일인 모레까지는 여야 간 ‘말썽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범진보 진영은 이날도 ‘5·18 망언’ 의원에 대한 중징계와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 5·18 왜곡 특별법 처리 등을 한국당에 거듭 요구했다. /연합뉴스

정인화, 도서지역 병원선 지원 3법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은 16일 도서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선 운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법률안들은 ▲‘지역보건법’을 개정해 병원선 운영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병원선을 추가하고 ▲병원선에서도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국가건강검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정 의원은 “의료영역 외에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공서비스가 사각지대 없이 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소외된 곳을 살피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전경선,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協 감사패

전남도의회 전경선(목포5·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지난 14일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전 의원은 평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종사자 처우개선과 필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장애인 복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남궁경문 전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협회장은 “전경선 위원장은 장애인들의 권



리를 보호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은 “전남지역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도의회 ‘무장애관광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장애인·노인 등 제약 없는 관광 조성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무장애관광 환경조성 조례’가 지난 14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무장애’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이 없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인·노인 등 신체적 제약을 받는 사람들에게 제약을 없애주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전남도는 장애인 14만 명(전국 258만 명)으로 도 전체인구의 7.56%, 65세 이상 노령인구 41만 명(전국 765만 명)으로 도 전체 22%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노인 등이 관광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물리적 환경 조성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의 무장애관광 환경조성으로 관광 약자 삶의 질 향상과 전남 도내 여가 산업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무장애관광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무장애관광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무장애관광 지원센터 설립 및 사무위탁, 협력체계 구축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임채만기자

이재명, 1심서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무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정훈)는 16일 선거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고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http://www.kukje9.co.kr

“맛과 멋을 새롭게”

출장뷔페 전문외식산업

▶ 자매회사: 제사나라 062)527-0044/011-602-2278

- ▶ 야외 결혼식
- ▶ 칠순잔치
- ▶ 체육대회
- ▶ 야유회

국제외식산업(주) 문의.062)262-2278/011-602-2278